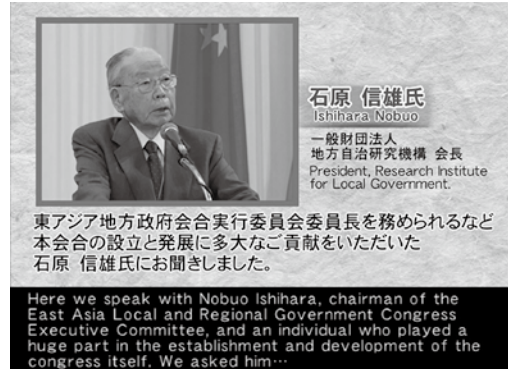




10주년 기념

'메모리얼 상영'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발자취를 이사하라 노부오 씨(회합 설립 당초의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 실행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터뷰와 지금까지의 회합 사진을 통해 되돌아보는 ‘메모리얼 상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시하라 노부오 씨 인터뷰(개요)

회합 설립 당초의 추억에 대하여

저에게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쪽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인상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는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 자치성에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한층 더 그 느낌이 강했습니다.

참가하여 인상 깊었던 일, 회합에 얹힌 추억에 대하여

인상에 남아있는 것은 중국과 한국의 지방정부 분들이 중앙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점입니다.

이 회합을 계기로 참가 지방정부를 방문하여, 지역의 상황을 보러 갔습니다. 지방정부 분들이 활약하고 있는 현장을 과감히 방문한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회합의 의의에 대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여, 이 회합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0년간은 대단히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가 지방정부가 의론을 통하여 다양한 교훈을 얻고, 각각의 행정에도 반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회합의 전망에 대하여

10년전과 달리, 일본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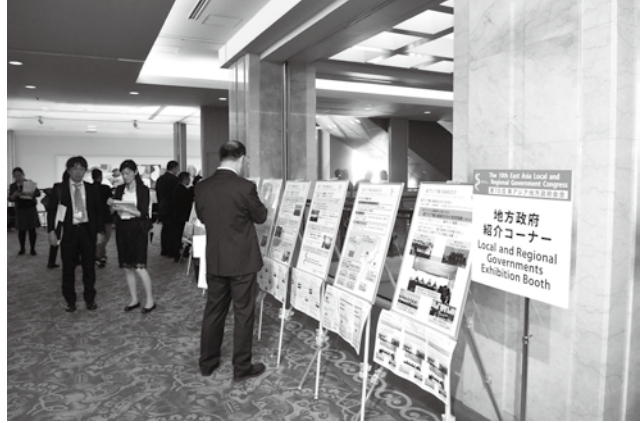
동아시아에는 일본과 같이 인구감소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사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대하여 의견교환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10주년 축하

10주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본 회합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교훈을 살려 지역주민이 보다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론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한번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설립 경위와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패널 전시를 실시하였습니다.



패널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이란?

2010년, 헤이조 천도 1300년을 기념하여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회합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행정 과제에 대하여 각각의 정책을 서로 보고하고, 상호이해를 깊이함과 동시에, 진지한 의론을 통하여 과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회합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하여, 우리들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상호 우호 교류를 깊이함으로써 국가간의 외교를 보완하여 평화롭고 안정적인 동아시아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지방정부】 7개국72지방정부

- ◇중국(16) 장쑤성, 안후이성, 산둥성, 허난성, 산시성, 간쑤성, 청두시, 시안시, 뤼양시, 양저우시, 황산시, 쑤저우시, 웨이팡시, 린이시, 둥잉시, 둔황시
- ◇인도네시아(2) 서자바주, 욕야카르타 특별주
- ◇말레이시아(1) 말라카주
- ◇필리핀(3) 오로라주, 디나룬간정, 발레르시
- ◇한국(8) 경기도, 충청남도,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주시
- ◇베트남(5) 푸토성, 투아티엔·후에성, 광남성, 비엠티시, 후에시
- ◇일본(37)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교토부,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고치현, 구마모토현, 나라현, 다카조시, 아라카와구, 니가타시, 고후시, 다카야마시, 다자이후시, 나라시, 덴리시, 가시하라시, 고세시, 가쓰라기시, 이카루가초, 미야케초, 아스카무라, 고료초, 시모이치초



나라현은 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개최를 시작하였는가? ①

7세기~9세기의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의 영향이 강했으며, 국제성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한 글로벌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수나라와 당나라가 글로벌 센터가 되어 주변 지역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수도는 나라에 있었으며(천황이 나라에 거주), 수나라와 당나라, 그리고 한반도를 통하여 유라시아 각지의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현은 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개최를 시작하였는가? ②

당시로부터 대략 1300년이 경과한 지금, 동아시아는 새로운 글로벌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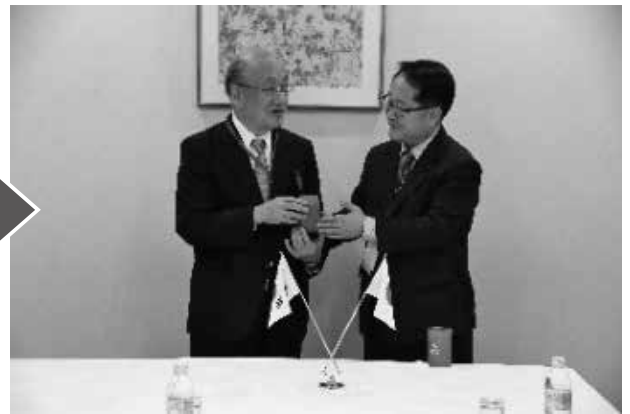
동아시아가 평화롭게 번영하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외교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간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을 도모하여, 각국의 사람들이 교류와 활동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현은 1300년전에 동아시아의 글로벌사회로부터,
고도의 문명을 받아 매우 큰 은혜를 얻은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동아시아 글로벌 사회를 평화롭게 번영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공헌하려는 마음으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설립을 발안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깊어가는 교류



교류의 플랫폼

지금까지 어떠한 의론을 하여 왔는가? ①

~토의 테마와 참가자의 코멘트로부터~

참가자 코멘트는 각 회의 보고서로부터(직함은 당시의 것)

제창자 회합	2009년10월25일(일) ~ 28일(수)	3개국19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향후의 한국·중국·일본의 교류 촉진을 향하여 ~동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		

‘향후 동아시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 기초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방자치연구기구 회장
이시하라 노부오 씨



제1회	2010년10월6일(수) ~ 8일(금)	6개국 34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문화유산의 보존, 관광진흥’, ‘차세대 교류’		

‘지방정부가 한 곳에 모여, 각 지역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며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초대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



제2회	2011년10월18일(화) ~ 26일(수)	6개국 45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위기관리’, ‘지역진흥’		

‘동아시아의 지방정부의 상호 신뢰하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힘, 활력 넘치는 동아시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현 지사
아라이 쇼고



지금까지 어떠한 의론을 하여 왔는가? ②

~토의 테마와 참가자의 코멘트로부터~

제3회	【상급 실무자】 제1회 테마별 회합 : 2012년8월28일(화) ~ 29일(수) 제2회 테마별 회합 : 2012년9월10일(월) ~ 11일(화)	총 6개국 47지방정부
	【수장급】 전체 회합 : 2012년11월5일(월) ~ 6일(화)	일본국 나라현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시책’, ‘지역진흥’, ‘인재육성’	

‘이러한 의견교환을 동아시아 각국과 교류하면서 한층 더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중략) 각국의 경험 교류가 활성화하여 **동아시아 전체가 활력을 얻을 것이다.**

홋카이도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미야모토 타로 씨 (강사)



제4회	2014년1월20일(월) ~ 22일(수)	6개국 41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 ‘지역경제의 진흥과 고용’		

‘**지방정부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다.** 사회보장, 인프라 정비, 학교 건설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지역 차원에서 전개할 때 비로소 큰 비전이 실현된다.’

전 ASEAN사무총장
수린·핏수완 씨



지금까지 어떠한 의론을 하여 왔는가? ③

~토의 테마와 참가자의 코멘트로부터~

제5회	2014년10월27일(월) ~ 29일(수)	7개국 41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지역경제의 진흥’ , ‘지역 만들기’ , ‘관광 진흥’		

‘본 테마에 참가한 멤버들이 지역생활의 질을 높여,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관광진흥이며 지역 전체의 진흥과 지역 만들기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함께 지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동일한 성과와 결과를 응시하는 하나의 팀**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JTIC.SWISS대표

야마다 케이치로 씨 (강사)

제6회	2015년10월25일(일) ~ 27일(화)	7개국 43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관광에 의한 지역경제의 진흥’ ,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 ‘농업·농촌 진흥’		

‘인구와 면적, 역사, 문화 등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과제도 안고 있다 .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공통된 부분에 관한 **연계를 강화하고 서로 배우는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주)Prot Asia and Pacific

대표이사 회장

고토 겐이치 씨 (강사)

제7회	2016년11월6일(일) ~ 8일(화)	6개국 41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 ‘농업과 지역 경제의 발전’ , ‘저출산 대책의 추진’		

‘이렇게 나라현이 끈기있게 시책을 실시해 왔다는 것에 **일본인 모두는 긍지를 느껴야 할 것이다.**’



(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모타니 고스케 씨 (강사)

지금까지 어떠한 의론을 하여 왔는가? ④

~토의 테마와 참가자의 코멘트로부터~

제8회	2017년5월10일(수) ~ 11일(목)	6개국 31지방정부	중국 쓰촨성 청두시
‘관광업 진흥의 정책혁신’, ‘산업과 인재의 정책혁신’, ‘도시와 농촌건설의 정책혁신’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2010년도에 설립된 이래 지금은 회원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

중국 쓰촨성 청두시 시장
뤄창 씨



제9회	2018년11월1일(목) ~ 3일(토)	6개국 39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농림어업의 진흥’, ‘글로벌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재 육성’			

‘각 지방정부가 창의력을 발휘한 시책을 공유하고 **공통과제와 시책에 대한 인식**을 돈독히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회합**이었다.’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중국연구교류 고문
다나카 오사무 씨 (강사)



제10회	2019년11월6일(수) ~ 8일(금)	5개국 40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관광 진흥’,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The 10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더욱 폭이 넓어지는 의론의 장

○ ‘제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처음으로 나라현이외의 장소,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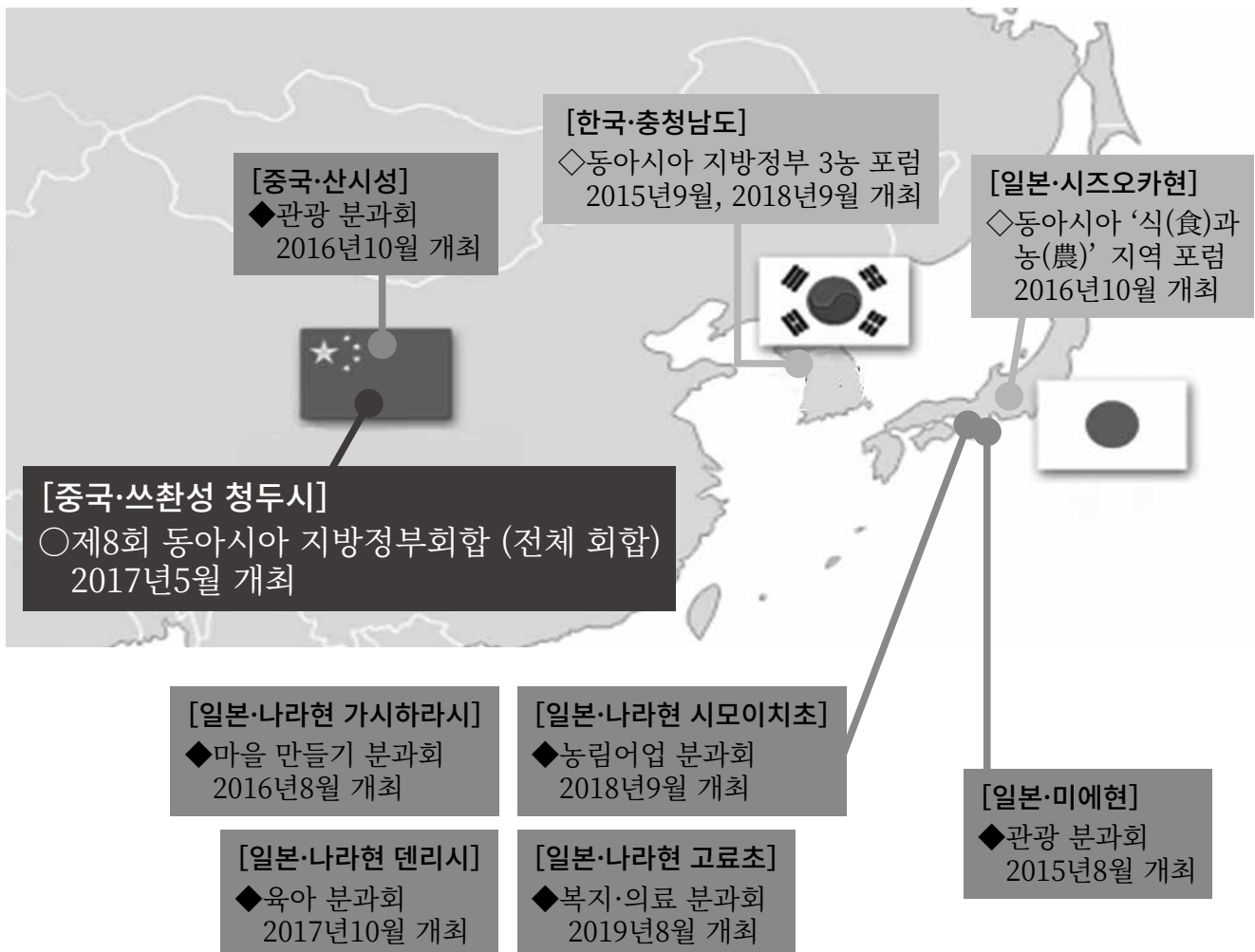
● 각 회원 지방정부에 의한 시책

◆ ‘분과회’

회원 지방정부가 주최하고, 회원지방정부를 참가 대상으로서 개최하는 실무자 레벨의 공부회

◇ ‘관련 포럼’

원칙적으로 회원 지방정부가 주최하고, 회원 지방정부이외도 참가 대상에 포함되는 포럼 등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미래 ~상호 이해, 신뢰 구축, 행정 능력 향상의 플랫폼으로서~

동아시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충실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①나라현에서의 개최만이 아닌 **해외에서의 개최**를 지향합니다.
- ②앞으로도 동아시아의 현시점의 공통 테마를 중심으로, 의론과 정보 교환을 실시하여,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 향상과 평화롭고 안정적인 동아시아의 발전에 공헌합니다.

관광 분과회
(2015년 일본·미에현)



관광 분과회
(2016년 중국·산시성)



제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2017년 중국·쓰촨성 청두시)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
(2018년 한국·충청남도)



복지·의료 분과회
(2019년 일본·나라현 고료초)

